

## 밝혀지는 植物資源(7)

李 昌 福

(서울大學校 名譽教授)

### Plant Resources Discovered(7)

Tchang Bok Lee

(Emeritus Professor of Seoul Nat'l Univ.)

#### Summary

During last 7 years our taxonomists have made remarkable progress in the field of Numerical, Cytotaxonomical, Ecological, Chemical, Serological and Palynological attack to plant taxonomy. Many new taxa and unrecorded taxa were found through their work of investigation.

Following 41 taxa have been disclosed from various parts of Korea, which include findings of new taxa, unrecorded species from studies of specimens and field exploration and distribution to new areas of known species.

*Abelia dielsii* Rehder—Caprifoliaceae

*Aconitum sibiricum* Poir.—Ranunculaceae

*Aletris foliata* Bur. et Fr.—Liliaceac

*A. fauriei* Lev.—Liliaceae

*Adenophora grandiflora* for. *alba* T. Lee—Campanulaceae

*A. lamarckii* Fischer and for. *albiflora* T. Lee—Campanulaceae

*Allium thunbergii* for. *alba* T. Lee—Liliaceae

*A. thunbergii* for. *rubra* T. Lee—Liliaceae

*Anemone glabrata* Jujep.—Ranunculaceae

*Apocynum sibiricum* Jacq.—Apocynaceae

*Artemisia laciniata* Willd.—Compositae

*Anagallidium dichotomum* Griseb.—Gentianaceae

*Carpinus laxiflora* var. *macrostachys* Oliv.—Betulaceae

*Codonopsis ussuriensis* var. *minima* (Nakai) T. Lee—Campanulaceae

*Dracocephalum rupestre* Hance—Labiatae

*Forsythia saxatilis* Nakai—Oleaceae

*Gentiana uchiyamai* for. *alba* T. Lee—Gentianaceae

*Goodyera maximowiczii* for. *alba* T. Lee—Orchidaceae

*Hanabusaya asiatica* Nakai—Campanulaceae

*H. asiatica* for. *asiatica*—Campanulaceae

*H. asiatica* for. *alba* T. Lee—Campanulaceae

*H. asiatica* for. *albescens* T. Lee—Campanulaceae

*H. asiatica* for. *rubescens* T. Lee—Campanulaceae

*H. asiatica* for. *rubropurpurea* T. Lee—Campanulaceae

*Hypoxis aurea* Lour.—Amarylidaceae

- Isoetes japonica* R. Br.—Isoetaceae  
*I.* *corean* Chung et Choi—Isoetaceae  
*Liparis nervosa* Lindl.—Orchidaceae  
*Lycopus uniflorus* Michx.—Labiatae  
*Michelia compressa* Sarg.—Magnoliaceae  
*Neolitsea sericea* for. *xanthocarpa* Okuyama—Lauraceae  
*Omphalodes krameri* Fr. et Sav.—Boraginaceae  
*Ostericum koreanum* kitagawa—Umbelliferae  
*Peucedanum coreanum* Nakai—Umbelliferae  
*Polygonatum sibiricum* Redoute—Liliaceae  
*Orostachys filifer* Nakai—Crassulaceae  
*Saussurea mongolica* Fr.—Compositae  
*Thalictrum rhanorhizon* Nakai—Ranunculaceae  
*Villebrunnea frutescens* Blume—Urticaceae  
*Viola crassa* Makino—Violaceae  
*Viola pumilio* W. Becker—Violaceae  
*Viola yazuwana* Makino—Violaceae

1978년 까지는 本題를 통하여 당시까지 밝혀진 것을 정리하였다. 그러나 그후에 있어서는 많은 학자들이 각각 專門誌에 이것을 발표하여 왔었으나 때로는 찾아 보기 어려운 것이 있어 여기에 정리 하고자 한다. 귀중한 자원중 이노리나무같이 사라졌다고 판정할 단계에 있는 것도 있으나 얘기더덕 처럼 아직 한 구석에 남아 있는 것도 있었다.

제주도 남제주군 절부암에서 밝혀진 박달목서의 巨木과 경기도 백운산에서 발견된 히어리의 군총은 수원 광교산에서 자라던 히어리의 分布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 주는데 충분하고도 훌륭한 발견이었다.

지금까지 발견된 것을 편의상 Alphabet 순으로 보면 다음과 같이 28속 27종 2변종 및 11품종 등 40종류가 된다.

#### 정선댕강나무, *Abelia dielsii* Rehder—인동과

1985년 6월 1일 강원도 半論山 1,000m 고지의 능선에서 발견되었다. 당시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철쭉나무가 발견되었다는 정보에 따라서 찾으러 갔다가 발견되었다.

우리나라에서 알려진 댕강나무속의 식물은 텔태강, 섬맹강, 탱강나무 및 줄댕강나무등 4종이 자라고 있는데 텔맹강나무와 비슷하지만 현저한 花梗에 두개의 꽃이 달리는 것이 다르다.

바위틈에서 자라며 꽃은 6월에 피고 흰색이다.

#### 노랑투구꽃, *Aconitum scbircicum* Poir.—

미나리아재비과

정선댕강나무가 자라는 곳에서 그리 멀지 않은 능선

의 흙에서 자란다. 경선나무는 바위틈에서 자라는데 비하여 대조적이다.

백두산 지역에서 자라며 강원도 북부에서는 채집된 바 있었으나 우리의 영역에서는 처음 발견된 것이다. 진짜 비슷하게 생겼으나 잎이 잘게 갈라지고 털이 많으며 꽃이 노랗다.

#### *Aletris foliate* (Max.) Bur. et Fr.—백합과

1984년 7월 설악산 편금성 옆의 계곡에서 李愚喆 박사가 채집하였다는 보고를 하였다.

설악산 지역에는 여우꼬리풀, *A. fauriee Leveillei*가 자라고 있다. 쥐꼬리풀은 지이산, 가야산, 설악산 및 금강산에서 자라는 우리나라 특산식물이다. 표본을 직접 보지 못했기 때문에 뭐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기사 중에 쥐꼬리풀의 특색과 비교한 점이 의심 스러워 다시 확인될 때까지 여우꼬리풀에 대한 애착이 가지 않는다. 한가지 확실한 특색은 *A. foliata*의 花被外面에 점질이 있다는 점이다.

#### 흰도라지모싯대, *Adenophora grandiflora*

for. *alba* T. Lee—초롱꽃과

도라지모싯대의 흰꽃이며 도라지모싯대의 꽃의 크기는 변이가 많으나 흰것은 거의 도라지꽃 비슷한 것이다. 계방산 조사 때에 처음 나타났다.

#### 두메잔대와 흰두메잔대 *Adenophora lamarckii*

Fischer and for. *albiflora*—T. Lee 초롱꽃과

북부의 고산지대에서 자라지만 설악산 정상 근처에서도 발견되었다. 화채봉을 타고 대청봉으로 향하는

능선상에서 자란다.

힐산부추, *Allium thunbergii* for. *alba* T.

Lee 와 붉은산부추, *A. thunbergii* for.  
*rufra* T. Lee

한라산 제 2 횡단도로의 1,100m 고지 후계소 근처에  
서 흔히 자라고 있다.

바이칼바람꽃, *Anemone glabrata* Jujep.—  
미나리아재비과

북방계통의 희귀종이며 이우철 교수가 강원도 大成山  
에서 흰아비바람꽃과 더불어 채집 하였다고 보고 하였  
다. 우리 영역에서 발견된 것은 이것이 처음이다.

수궁초, *Apocynum sibiricum* Jacq.—  
월족도과

筆者가 한강에서 발견한 이래 소식이 없었으나 제주  
도 중산간지대의 습지에서 金文洪 教授가 이것을 다시  
발견하였다. 한강에서 발견한 장소는 하천 정리 작업  
중 발붙일 곳이 없어졌다.

구와쑥, *Artemisia laciniata* Willd.—극화파

백두산 지역에서 알려진 종이며 한라산 학술조사 때  
김문홍 교수가 한라산 남쪽 윗세오름 밑의 1,600m 고  
지에서 채집함으로 또 하나의 식구가 늘었다.

대성쓴풀 *Anagallidium dichotomum* (L.)  
Griseb.—용담과

강원도 大成山에서 이우철 교수가 처음으로 채집한  
것인데 표본을 보내 왔기에 곧回信을 보냈으나 연락  
이 되지 않고 고原教授의 감정으로서 발표하였다.

쓴풀속과 비슷하지만 花冠 양쪽 밑부분에 鱗片이 있  
는 것이 다르다. 이 표본을 받았을 때 金恩植君이 이  
것을 해부하여 쓴풀속과 다르다는 것을 밝혀서 통지를  
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않았다. 中國에서는 이 특색을  
취하여 腺鱗草라고 부르고 있다.

새로운 속이 하나 침가 되었으니 그의 흔하지 않다  
고 한다.

대성산에서 본 식물과 더불어 공작고사리와 골고사  
리도 자란다는 사실이 이때에 밝혀졌다.

조령서어나무 *Carpinus laxiflora* var.  
*macrostachys* Oliv.—자작나무과

문경 새재 제 2 판문 근처에서 자라며 果穗가 보다  
길고(6~9cm) 보다 길으며 苞는 끝이 둔하고 밑부분이

그리 갈라지지 않았다.

애기더덕, *Codonopsis ussuriensis* var. *minima*  
(Nakai) T. Lee, Grad. Nov. *Codonopsis*  
*minima* Nakai in Veg. Quelp. 85(1914)  
et Bot. Mag. Tokyo 29 : 7(1915).

프랑스의 가톨릭 신부이며 世界的인 探集家인 Faurie  
神父가 제주도 영실근처의 표고 1,000m 지점에서 채집  
한 것이 시초이며 (Faurie no. 1490) 그후 같은 장소에  
서 Taquet 신부가 채집 하였다(Taquet no. 4398).

얼핏 보기에도 소경불알이라는 식물같이 생겼기에 처음에는 애기소경불알이라는 이름을 붙였으나 정체가 밝혀진 다음에는 애기더덕으로 불렀다.

1986년 윗세오름 바로 밑에 있는 판목지대에서 주목  
의 피해상황을 조사 하다가 표고 1,600m 지점에서 다시  
발견하였다. 다시 발견되기 전까지는 영실 근처의  
숲 속에서 자란 영양실조의 표본으로 취급하였으나 판  
목지대에서는 풀밭에서 자라고 있었음으로 정상적인  
생장을 한 것이다. 뿐만아니라 소경불알의 경우 털이  
거의 없어진 것도 있으나 본 식물은 펴진털이 많은 것  
도 하나의 특색이다. 뿌리는 둥글고 전자와 다를 바  
없다. 그러나 득립된 꽃까지는 무리가 있다고 보아 변  
종으로 한다.

벌깨풀, *Dracocephalum rupestre* Hance—  
풀풀과

압록강 유역에서 자라며 강원도 정선의 반론산에서  
1985년 발견되었다. 북쪽 사면의 바위틈에서 자라며  
옆에는 사창분취와 산솜다리등의 특산식물이 자다고  
약간 떨어져서 정선댕강나무가 있다.

산개나리, *Forsythia saxatilis* Nakai,  
풀풀레나무과

성균관대의 이상태 박사가 이에 대한 연구 특히 花  
粉學의 研究로서 산개나리를 3개의 변종 즉 var. *lanceolate*와 var. *pilosa* 및 var. *saxatilis* 등으로 구분하였다.

外形의 특색에서는 털과 잎의 형태를 크게 다루었  
는데 本人이 조사한結果와는 差異가 심하기 때문에 의  
문이 생긴다.

관악산정에서 자라는 純自生 산개나리는 잎의 뒷면  
脈上에 털이 密生하였다. 이것을 관악수목원에서 捷木  
으로 키웠더니 잎은 월동이 커지고 털은 간혹 찾아볼  
정도이다. 홍릉의 시험장 구내에서 기른 것도 약간 털  
이 있으나 자생지에서는 관악산의 것과 같았을 것이라고  
생각되어 細分하는데는 다른 특색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흰칼잎용담, *Gentiana uchiyamai* for.  
*alba* T.Lee—용담파

처음에는 오대산 상원사에서 북대사로가는 길가에서 발견되었으나 반로산에서도 한 포기 있었다. 다소 습기가 있는 옆에서 자라는 것이 공통점이다.

흰섬사철, *Goodyera maximowiczii* for.  
*alba* T. Lee

섬사철은 제주도에서 자라는 우리나라 특산종의 하나이다. 어리목 근처의 숲 속에서 자라는 것이 1985년 발견되었다.

금강초롱, *Hanabusaya asiatica* Nakai—초롱꽃파

남쪽으로 太白山과 가지산 까지 내려온다고 하지만 가장 많이 자라는 곳은 오대산과 설악산이다.

꽃색이 많이 갈라지고 있다. 원기제에는 기본종이 (for. *asiatica*) 연한 자주색이라고 되어 있으나 연한 자주 빛에서 짙은 자주빛이 기본형이라고 본다면 다음과 같은 것을 볼 수 있다.

흰금강초롱, for. *alba* T. Lee, 오색계곡의 玉女瀑布에서 발견된 다음 다른 곳에서는 純白色을 볼 수 없었다.

설악금강초롱, for. *albescens* T. Lee, 흰바탕에 연한 자주빛이 도는 것으로 설악동에서 화채봉을 타고 大青峯으로 올라가는 능선상에 많고 千佛洞溪谷의 암벽에도 때로는 많이 보인다.

오색금강초롱, for. *rubescens* T. Lee, 설악금강초롱과는 달리 흰바탕에 붉은 빛이 다소 도는 것, 오색계곡, 점봉산 사면에서 자란다.

붉은금강초롱, for. *rubropurpurea* T. Lee, 자주색 바탕에 붉은 빛이 강하게 나타나는 것.

*Hypoxis aurea* Lour.—수선화파

1935년 일본인 大井가 제주도에서 채집한 표본이 일본 京都大學에서 보존되어 있음을 이우철 박사가 밝혔다.

비교적 큰 식물인데 어떻게 1점만이 수집 되었는가라는 의문이 나지만 제주도에서 자랄 수 있다는 사실만은 인정할 수 밖에 없다. 앞으로 자세한 검토가 요구되는 것의 하나이다.

물부추, *Isoetes japonica* R. Br.—물부추파

평택에서 발견된 이래 찾지 못하고 있었으나 제주도

의 중산간지대에서 金文洪 교수가 채집한 것이 있다.

최근 崔鴻根 박사가 학위논문으로서 水生管束植物을 연구하면서 참물부추, *I. coreana* Chung et Choi를 강원도 화천군 하나님 한강변에서 채집하여命名하였다.

종으로서 適否는 둘째로 하면 어찌면 참물부추란 이름을 썼을가 하는데 마음이 걸린다. 참등, 참오동이 학생들을 가르키는데 얼마나 애를 먹이는지 분류학을 제대로 활용한 사람이면 느꼈을 것이다.

일반 사람들이 알고 있는 오동나무는 식물학자들의 참오동이요 등나무는 참등이라고 하여야 하는 고충이 또 하나 생겼다.

등나무는 天然記念物로 지정된 것도 있어 참등을 등이라 하고 등나무는 애기동이라고 고쳐가고 있는 고충을 알아 주었으면 좋겠다.

혹란, *Liparis nervosa* (Thunb.) Lindl.—난초파

제주도 남제주군 표선면 남원읍등의 낮은 지대에서 자라는 것을 김문홍 교수가 수집 하였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처음 보고된 것이며 다른 종류에 비하여 假球의 길이 3~10cm로서 마디 사이가 4cm에 달하는 것이다.

털쉽사리, *Lycopus uniflorus* Michx.—풀풀파

1986년 9월 한라산 1,600m 근처에서 발견되었다. 푸우 속에 지나다가 이상하여 뜯어 갖고 온 것을 조사한 결과 다른 쉽사리와 다른 점이 있기에 10월 3일 다시 확인하였다.

제주도에서 보고된 쉽사리류는 좀개쉽사리(개쉽사리인듯)와 쉽사리로 보고하였는데 표본을 확인하지 않고 수록한 것 같이 느껴진다.

1914년 일본인 中井는 논뚝에서 자라는 털쉽사리, 애기쉽사리 및 쉽사리를 收錄하였다. 그중의 *Lycopus coreanus*의 기준표본을 2종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나는 1904년 8월 흥노리의 논뚝에서 Taquet 神父가 수집한 것(no. 3104)이고 또 하나는 1908년 8월 17일 Taquet 神父가 한라산 영실 1,000m 근처에서 수집한 것(no. 1494)이며 전자는 개쉽사리에 틀림 없으나 후자는 털쉽사리이다. 2종의 표본을 혼합해서 原記載를 作成하였음으로 *L. coreanus*란 학명은 어느 종에도 적용할 수가 없다. 따라서 *L. ramosissimus*가 개쉽사리의 正名이 된다.

금년 10월 아직 털쉽사리가 자라고 있음을 확인하였기에 제주도에는 개쉽사리와 더불어 털쉽사리도 자란다는 사실을 밝혀 둔다. 따라서 李永魯와 金文洪 교수

가 적용한 좀 개쉽사리는 어떤 종을 뜻하는지 알 수 없다. 단 1914년 中井의 텔첩사리란 텔첩사리가 아니고 학명과 일본명은 텔첩사리의 것을 사용하였으나 채집지로 보아 개쉽사리였음이 확실해 보인다. 따라서 후의 학자들이 實物을 확인하지 않고 좀 개쉽사리 또는 개쉽사리 등으로 받아들인 것 같다.

#### 초령목, *Michelia compressa* (Max.)

Sarg.—목련파

흑산도 진리암 선착장 근처에서 자라던 커다란 古木이 “누구도 모르는 나무”란 別名을 지녔던 것도 옛말 중의 하나로 되었다. 이것이 일본산 초령목이라고 밝혀 놓았더니 어떤 학자는 귀신나무 또 어떤 학자는 후박나무의 거목으로 天然記念物로 지정 하자는 提案까지 나왔었다. 그러나 제주도 돈내코 계곡에서 자라는 天然生이 김문홍 교수에 의하여 밝혀짐으로서 일본서 들어온 종류가 아니고 우리나라의 자생종이라는 확신이 생겼다.

흑산도의 古木은 점차 쇠약해져 가고 있다. 나무 그늘이 좋아서 나무 밑으로 모여 들기 때문에 밑에서 싹이 튼 어린나무가 발 불일 장소가 없었겠다. 1985년 봄 철 나무가 서 있는 근처를 뒤졌으나 어린 묘목이 있었을 뿐이고 그 이상 자란 나무는 찾을 수 없었다.

#### 노랑참식나무, *Neolitsea sericea* for. *xanthocarpa* Okuyama—녹나무파

Kist에서 제주도 중문면에 농장을 설치하였을 때 장장이었던 李來增이 종자를 수집하였기에 冠岳樹木園과 千里浦樹木園에 전달 되었는데 후의 소식은 조사하지 못하였다.

#### 자반풀, *Omphalodes krameri* Fr. et Sav.— 지치파

1963년 7월 28일 벚속에서 피아골 계곡을 뒤지다가 채집된 것이 수원 동래 표본판에 소장되어 있다. 1985년 8월 어느날 폭우로 인하여 영실에서 왔다 갔다하다가 커다란 한 포기가 발견되어 제주 대학교에 전달하였다. 이것은 제주도에서 처음 발견된 것이다.

#### 강활, *Ostericum koreanum* Kitagawa— 산형파

건조 표본은 조사한 바 있었으나 살아 있는 것을 볼 기회가 없었다. 忠北丹陽의 축백나무 自生地 근처에서 이것과 비슷한 것을 발견하여 기르던 중 사고로 인하여 잃어 버렸다. 1985년 半論山의 철쭉을 조사 하다가 열

매가 달린 것을 한 포기 발견하여 조사한 바 강활이 틀림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강활의 특색은 학자에 따라 착각을 일으킬 정도로 변이가 있어 잘못 감정된 것이 많다. 그러기에 北川는 이것을 *Ostericum koreana*에서 *praeteritum*으로 정정하고 있다.

#### 두메기름나물, *Peucedanum careanum caranum*

Nakai, 산형파

金剛山 大長峯 바위틈에서 자라는 것이 알려졌다. 그러나 이우철 교수는 大成山에서 이것을 발견하여 발표하였다. 특산종의 하나이며 개체도 그리 많지 않다고 본다. 하여간 北方因子가 하나 들었으니 반가운 소식이었다.

#### 原黃精, *Polygonatum sibiricum* Redouté,

百合科

Faurie 神父가 1906年 6月 20日 江原道 金剛山에 들었다가 內陸地方으로 돌아 오면서 채집한 표본과 今井가 平壤 乙密台에서 채집한 표본이 日本의 東京와 京都大學에 소장되어 있다고 보고 하였다.

이것은 한약재로 보통 재배하고 있으며 중국산 이라고 믿어 왔다. 그러나 중국문화에는 한국에서도 자란다고 되어 있어 표본만으로 自生與否를 가리기 어려우나 옛부터 현재까지 재배한 것만은 틀림 없으며 황정에 대하여 原黃精이란 이름으로 통하고 우리나라의 것은 黃精 또는 眞黃精으로 통하고 있다.

#### 애기바위솔, *Orostachys filifer* Nakai,

돌나물파

금년 太白山 학술조사 때 이우철 박사가 발견한 것인데 꽃이 없음으로 확실하지는 않으나 본종에 틀림 없다고 보고 있다.

#### 복분취, *Saussurea mongolica* Fr.—국화파

半論山 능선상에서 자라며 사창분취, 당분취등과 더불어 작은 군집을 형성하고 있다. 北方因子의 분포 남한지로서 중요하기 때문에 근처에서 자라는 철쭉의 老木과 더불어 분취류 자생지로서 天然記念物로 지정하였다.

#### 작은산꿩의다리, *Thalictrum rhanorhizon*

Nakai, 미나리아재비과

한라산에서 자라는 특산종으로 알려진지 오래 이지만 널리 알려지지 못하였다. 열매 보기기에 자주꿩의다

리와 같으나 뿌리에 달린 방추상근이 1개로 퇴화한 것이 다르다. 영실에서 1,800m 까지 드문 드문 나난타다.

**구름털제비꽃 *Viola crassa* Makino,—제비꽃파**

狼林山과 赶戰高原 이북에서 자라는 것으로 알려졌던 종이며 1985년 학술조사 때 한라산 1,400m 고지의 봉괴지에서 金文洪 교수가 발견하였다.

우리 영역에서 자라는 식물종이 1개 증가한 것임으로 반가운 소식이었다. 노랑제비꽃과 비슷하지만 줄기가 옆으로 비스듬히 서고 잎이 두꺼우며 털이 없다. 본시 구름제비꽃이라고 하였던 것이나 전혀 다른 식물인 구름제비난과의 혼돈을 피하기 위하여 하였던가 또는 잎의 외형이 둥근털제비꽃과 비슷한데서 그랬던지 하여간 털이 없는 식물이 구름털제비꽃으로 된 것도 무는 인연이 있는 것 같다.

***Viola pumilio* W. Becker—제비꽃파**

1935년 5월 일본의 大井가 제주도에서 채집한 표본이 京都大學에 소장되어 있다고 이우철 박사가 지적하고 있다.

자주잎제비꽃처럼 잎의 뒷면에 자주빛이 도는 수가 많고 짙은 녹색에 흰무늬가 있으며 꽃은 희지만 자주빛 줄이 있는 것이 특색이다.

또 하나의 숨었던 자원이 밝혀진 셈이며 일본에 分布 한다.

**좁고깔제비꽃 *Viola yazawana* Makino,**

제비꽃파

설악산 학술조사 때 이영노 박사가 표고 700m의 소승

폭포 근처에서 발견한 未記錄種이며 고깔제비꽃과 비슷하지만 죽은 염병이 떨어지지 않고 달려 있으며 꽃이 희고 옆 열편에 털이 없는 것이 다르다.

**비양나무, *Villefrunea frutescens* Blume,—  
쐐기풀파**

제주도의 비양도 噴火口 내에서 김문홍 교수가 발견한 것이며 우리나라에서는 처음 이지만 일본에 분포한다.

높이 2m 정도 자라는 관목이며 가지가 가늘고 花被裂全은 열매가 성숙할 때 액질로 되며 열매를 완전히 둘러싼다. 좀깨잎나무에 비하여 잎은 호생하고 가지가 훨씬 가늘다.

**References**

1. Chung, Tae Hyun, 1957. Korean Flora, Vol. 2, 1-1154, Shinjinsa, Seoul.
2. Chung, Tae Hyun, 1958. Korean Flora, Vol. 1, 1-589, Shinjinsa, Seoul.
3. Lee, Tchang Bok, 1978. Plant Resources Discovered, Bull. Kwanak Arb. 2:40-47.
4. Lee, Tchang Bok, 1980. Illustrated Flora of Korea, 1-990, Hyangmunsa, Seoul.
5. Nakai, T., 1909. Flora Koreana, Vol. 1, Jour. Coll. Sci. Imp. Univ. Tokyo. 26:1-304, pl. 1-15.
6. Nakai, T., 1914. Korean Plants, 1:1-430, fig. 536, Seimido, Tokyo.